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8, 사무엘 상 11-12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1-12장, 사울의 최고의 시간, 사무엘이 백성과 대결하는 8회기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을 다룰 것입니다. 이 두 장은 실제로 하나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지만 두 가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나는 이것을 사울의 전성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울은 이 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왕권을 갱신한 후 그 여파로 백성들과 대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전 수업인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서 주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었고,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꺼리고 주저했으며 실제로 그 일을 전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은 그 행사에 참석했지만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공개적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선포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것이 우리가 요청한 것이 정확히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자신은 외모는 좋아 보여도 그의 품행은 그다지 인상적이지도 않고 주저하는 왕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왕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나라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병거와 여자와 돈을 축적할 수 없을 것이며, 여전히 여호와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유형의 왕일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마치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과연 사울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의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사울 자신도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요르단 강 동쪽 트란스요르단 지역의 적 왕, 나하스라는 이름의 암몬 왕에 대해 읽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뱀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터프가이임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붙인 이름일 수도 있고, 적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 말하자면 문학적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암몬 사람 나하스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그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에워쌌다고 나옵니다. 이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성읍이지만 요단강 동쪽 길르앗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와 조약을 맺으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리라. 쿰란의 4번 동굴에서 발견된 사무엘 사해 두루마리의 11장 시작 부분에 추가 구절이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원본 텍스트를 나타내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유물인 요세푸스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 추가 구절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더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실수로 생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장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자료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오른쪽 눈을 다 뽑아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빼지 아니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러나 7,000명이 암몬 자손의 세력을 피해 길르앗 야베스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정확하다면 우리에게 배경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야기에서 보게 될 내용과 일치합니다.

어쨌든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야베스 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면 온 이스라엘이 욕을 당할 조건으로 너희와 조약을 맺으리라.” 그러므로 나하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며 그들과 조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에는 절단에 대한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한 왕을 언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인 여호와 베섹을 멸절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 합당한 것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사기 1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앗고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에 대해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또 다른 사건을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나하쉬는 두 눈을 모두 빼지 않고 오른쪽 눈만 빼고 싶어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한쪽 눈만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땅을 경작하고 생산하고 그에게 공물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여기에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야베스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주국 봉신 조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하스는 주님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민이 될 것이며 그들은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

하지만 당신은 오른쪽 눈을 뽑아서 당신을 불명예스럽게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칠일을 주소서 하더라.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정신의 어떤 왕이 도움을 청하러 보내도록 허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캠페인이 이 문화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하면 실제로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나하스는 야베스 길르앗 밖에 있습니다.

그는 도시를 포위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그것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을 포위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주민들이 식량이 떨어져 포기할 정도로 절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이 캠페인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봅니다. 이봐, 7일만 더 지나면 내 권한에 맡겨질 테니 여기서 이 도시를 포위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그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전제로 합니다.

그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은 구절이 정확하고 정확하며 원문의 일부일 수도 있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주변 마을을 정복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는 자신의 힘과 군대에 대해 너무 확신을 갖고 있어서 '좋아,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하도록 보내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온다 해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며칠 안에 이스라엘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캠페인을 종료할 수 있고 이 도시를 빨리 내 소유로 삼을 수 있으며 내 군대 중 일부가 공격할 장기간의 포위 공격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것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에 동의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그들이 사울의 기브아 곧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사자들을 보내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사울은 소를 몰고 들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는 별로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자들을 연상케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밀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큰 왕궁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모두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한 말을 그에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것이고 그는 가서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의 기브아에 사자들이 온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즉, 베냐민 지파에 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로 돌아가 야베스-길르앗과 기브아 사이에 고대의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억해보면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과 그의 첩을 확대했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고,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도 그렇게 하여 내전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와서 지파 전체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따르면 베냐민 사람은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들을 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서원하였으니, 어리석은 서원이요, 경솔한 서원이로다. 그래서 아내가 필요한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나 되지 않으면 그 부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보내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성읍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들은 처녀 400명을 납치해 베냐민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연히 아내가 200명 부족했기 때문에 실로의 소녀들을 납치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은 모두 아내를 갖게 되지만, 여기에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베냐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요, 나도 그 마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연관성에 비추어 볼 때,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이 베냐민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왜 우느냐고 묻고, 11장 6절에서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자 10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크게 임하니라. 10장에서, 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군사적으로 뭔가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배하기 위해 산당에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화가 나서 소 한 쌍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이 왕이며, 군대를 하나로 모을 권한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의 소들도 이와 같이 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점에서 사무엘과 동조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었느니라.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을 소집하니 큰 군대가 함께 모였느니라. 이것은 또한 판사들을 연상시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자, 그는 너무 노하여 그녀를 토막내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베냐민이 내 아내에게 한 일이 있으니 여러분 모두 와서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을 인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했던 일이 연상되지만, 생각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레위인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살해당한 여인이 아니라 소 한 떼의 시체를 각 지파에게 나누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을 죽이기보다는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살해나 유괴가 아닌 여호와의 길르앗 거처가 인도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대조의 요점은 아마도 사울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통일될 것이며, 공동의 적인 암몬 사람 나하스와 맞서 진정으로 연합할 것이며, 내전으로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점을 의도한 것이라면 아마도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으로 뭉쳤다고 말할 때 그 표현은 사사기 20장과 같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지파들은 자신들의 형제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를 상대로 한 사람으로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브아 주민 사울은 외국의 적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 사건과 약간의 대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공통의 적에 맞서 새로운 왕 사울 아래 이곳에서 연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사사시대에는 분쟁과 내전이 있었고 비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끔찍한 암몬 왕 나 하스로부터 그 도시를 구원할 의도로 그의 군대를 야훼의 길르앗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쯤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자들이 가서 이 일을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기뻐하더라. 예상하셨겠지만 결국 우리는 오른쪽 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암몬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하겠다.”

여기에는 약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다음날 사울은 부하들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로 한 기드온의 전술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제로 주님을 믿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시대에 사울이 새로운 기드온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도 사울이 승리할 지점까지 진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들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은 암몬 자손의 진영에 침입하여 날이 더울 때까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매복시켰습니다.

기습.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흩어져서 둘도 함께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이르되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리이까 묻은 자가 누구이더이까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 끝부분에는 사울이 왕이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 집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사울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는 현재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드온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둔 후 에브라임 사람들과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표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이 큰 승리에 뒤이어 그들을 진정시키고 내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도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도전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단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축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전성기,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주제는 바로 사울의 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이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왕을 원했기 때문에 중요한 점입니다. 그들 세상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와 같은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단지 안전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비군과 함께 볼 수 있는 왕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을 완전히 보호하실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사울 자신이 직접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왕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1장의 첫 번째 부분의 주요 주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의 백성의 구원자이시며 안전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며, 믿음이 부족하고 그들이 겪고 있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이 시점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확실히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적들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이 신뢰하는 유일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효과적인 영적 리더십의 열쇠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몇 가지 리더십 자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짐 사이에 숨어 있던 시절부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열쇠가 된 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그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인간의 책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으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가 예언을 했을 때 순종적이고 현명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보장이 아닙니다. 내 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울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은 그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는 열쇠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암몬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군사적 승리자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 왕권을 갱신할 기회를 봅니다.

10장 끝부분에서 사울이 선택되어 이스라엘에게 소개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배에 탑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군사적 승리 이후의 이 시점에서 실제로 왕권을 갱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권을 다시 잡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잔치를 벌이며 11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몇 가지 말을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12장 1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다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권을 갱신하고 이 축하 행사를 하게 되므로 사무엘은 백성과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이 에피소드의 두 번째 주요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과 대결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안전은 그들에게 여전히 헌신하신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에 달려 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영예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왕권을 갱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과 맞서고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전의 원천은 왕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장에서 그들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확고해졌고, 11장에서

왕권이 새로워졌고, 사울이 자리 잡았고, 사무엘이 이 왕을 위해 옆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정직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확실히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의 아들들이 그와 같지 않다고 불평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지도자로서의 그의 자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비난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느니라.

이는 우리가 본 몇 가지 조건을 포함하여 8장에서 읽은 내용과 비슷해 보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가정된 자격이 있습니다.

왕은 전형적인 왕이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당신이 원하는 왕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도자는 왕입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한 봉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쳐서 증언하노라.”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계속해서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를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부정직했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가져갔느냐? 내가 누구의 당나귀를 가져갔나요? 내가 누구를 속였나요? 내가 누구를 억압했는가?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았느냐? 내가 이 일 중 하나라도 행했다면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정직한 판사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증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내 손에서 아무 것도 찾지 못한 것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께서 오늘 증언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는 증인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정말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직한 리더였습니다. 내가 물러나도 당신은 나에게 반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시점에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권고하는 배경으로 그들의 역사를 리허설할 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왕이신 분이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여기 서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 주리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정의로운 지도자였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신실하고 신실한 왕이 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분은 몇 번이고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시스라의 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그 땅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작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시작한 일을 완료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사 시대에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그 사사기의 군대 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팔았습니다. 4.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사사들을 읽어보면, 특히 삼손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사사기 3장에서 에훗이 그를 암살한 모압 왕 에글론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재판관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서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사에게서 볼 수 있는 일종의 기본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삼손 이야기에서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삼손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과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리이다 그러면 주님은 일반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 예루 바알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바단(Badan)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사위원 시절에는 바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영어 번역의 수정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NIV에서는 바락(Barak)이라고 읽습니다. 아마도 바단은 바락이라는 이름이 변형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다와 그는 자신을 사무엘이라고 언급하는데,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사사였으며 그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기서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비록 영감을 받았지만 사무엘과 다른 사사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후기 필사판일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대신에 삼손의 글을 읽을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역사의 기본 윤곽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릴 때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구원할 재판관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의 손에서 당신을 구출하셔서 당신이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불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무엘이 여기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언제나 여러분이 전투에서 패하고 적들이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이 약하시거나 태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불안하고 억압당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즉, 당신은 괜찮았어.

당신이 정말로 주님을 따랐다면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대적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시나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그들을 여기에서 벗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8장의 사건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당신이 내 아들들이 부정직하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왕이시면서도 나하스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비록 이전에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사실입니다.

당신은 왕을 원했고, 왕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것은 사울의 아이디어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왕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왕이 있으니 안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왕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수업에서 보았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법을 잘 알고, 읽고, 백성이 그 법에 따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왕이 있다고 해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규칙은 심사위원 시절과 동일하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돌아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현시점에서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12장 15절), 너희가 그의 계명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16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기서 주님께서 하실 일은 사무엘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확증적인 표징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밀 수확이 아닌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겨울 비가 내린 후인 5월이나 6월에 보리 수확 후 밀 수확이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밀 수확 중에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께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종류의 폭풍이 밀 수확을 일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수확물을 빼앗아가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을 구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표시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그 날 여호와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라. 그래서 모든 백성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둥과 비를 다스리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추수를 망친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는 언급은 없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사무엘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성이 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제 생각에는 그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들이 한 일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에는 항상 죄를 짓고 나서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망쳐버렸다는 걸요. 나는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매우 인내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그것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님께서 그들을 매우 엄하게 벌하실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즉, 우리는 당신이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무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무엘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모세로 묘사됩니다.

그는 모세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모세가 한 신명기의 진술을 모두 소진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에 대한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는 이것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여기서 그런 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배트에 나설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동의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우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며 너희를 구출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약을 통해 당신에게 헌신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음으로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백성을 대신하여 중재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호와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지자의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중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확신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왕이 있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규칙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신실하다면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분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과 맞서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 특별한 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성약 백성의 안전이 그들에게 계속 헌신하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조금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반역할 때에도

주님은 그들이 그분께 대한 새로운 언약적 충성의 대가로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합당치 않음이 입증될 때에도 자신의 언약 약속을 충실히 지키십니다. 이로써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경력에 대해 더 많이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무엘상 11장, 사울의 전성기는 바로 그 때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내리막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그 장을 다루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1-12장, 사울의 최고의 시간, 사무엘이 백성과 대결하는 8회기입니다.